



이슬람교 등 해외 종교지도자 20여명 국내 종교계 인사·신도 1만여명 참가

and Sustainability Religious Leaders

지구촌 평화와 미래를 위하여

‘세계종교지도자대회’ 8일 서울서 개막... ‘화합·평화·지속가능성’ 주제로

화합 평화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내세운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가 6월 8일 서울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개막했다. 세계종교지도자대회 개막식에는 팰립 타이어리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사무총장을 비롯해 담바지브 몽골불교 총정, 아비히 독일 예센 대 교수, 담마란타나 프랑스 테라바다 대표, 마르와트 파키스탄 ACRP 대표(이슬람), 하코헨 이스라엘 유대교 대표 등 20여명의 외국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불교계 종단 수장들과 녹원 오현 법승 스님, 김의정 중신회장, 김용표 교불련 회장 등 불교계 인사, 함세웅 안축석 신부, 박경조 KNCC 회장, 백도웅 목사 등 종교계 인사, 이명박 서울시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 각 종교 신도 1만 여명이 참가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 오현 스님(가운데)과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이 우르친데브 몽골 대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념·민족·이해의 경계 초월
이흥재 대회 집행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세계종교지도자대회 대회장 지관 스님(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념과 민족 그리고 이해의 경계를 넘어서서 인류공동의 대의를 위해 각성하고 행동하는 책임 있는 새 인류 운동을 시작하자”며 “일주일의 일정 동안 인류의 단 하나뿐인 고향 지구촌의 평화와 미래를 위한 뜻 깊은 만남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대회사를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나눔의 공동체를 이룬 열린 광장과 같은 서울에서 이번 대회가 시작되는 것이 뜻 깊다”고 말했다. 마르와트 파키스탄 WCRP 세계위원장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출 줄 모르는 노력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낸다면, 인류와 평화를 위해 한 평생 헌신한 한국의 전신적 지도자였던 만해 한용운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대회 개막을 축하했다.

개막식에 참가한 각 종교 신도들이 지도자들의 화합에 갈채를 보내고 있다.



서울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1만여명이 동참했다.

▲5일간 사찰·성당·성군관 등 한국성지 순례·평화메시지 발표

세계종교지도자들은 9일 조계사를 시작으로 천주교 제기동 성당, 천태종 관문사, 10일 유교 성균관, 개신교 경동교회, 11일 원불교 서울회관, 천주교 명동성당, 천도교 중앙대교당, 성공회 서울교구 교회, 12일 대순진리회 제주 본부, 경주 석굴암, 불국사, 13일 합천 해인사, 백담사 단해마을 등을 순례하며 평화 메시지를 발표했다.

2006세계종교지도자대회는 14일 서울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세계종교지도자 종교화해 인류평화 서울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행사의 막을 내린다.

서울선언문에서 세계종교지도자들은 “우리는 세계 종교들의 가르침 속에 공통적인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인류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약자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인간적으로 대접하며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인간 내부에 화해와 미덕을 심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연대해 우리가 속한 종교적 공동체의 사람들이 오늘의 폭력적인 상황을 평화의 상황으로, 위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친 자연적인 지구공동체로 만드는 희망을 일구는 일에 헌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할 예정이다. 서울선언문에는 경제 종교 생태 정치 문화 사회 포럼의 7개 분야에 걸친 행동강령도 포함됐다.

글=강지연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interview 팰립 타이어리 WFB사무총장

“사상의 차이 넘어 의견 교환”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에 참석한 팰립 타이어리 WFB(세계 불교도우연합회) 사무총장을 대회 개막에 앞서 잠실 롯데호텔에서 만났다.



팰립 타이어리 사무총장은 “평화의 목소리로 세계종교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대회라 기대하고 있다”며 “서로 사상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이 대회를 통해 세계 종교의 조화와 평화를 위한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일본에서 세계불교도대회 개최 준비를 하고 있는 팰립 타이어리 사무총장은 “그 이전에 한국이나 태국 방콕 등에서 세계 불교도들이 상좌부·대승·금강승 불교 등 종파의 차이에 상관없이 서로 모여 이해하고 전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가치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 세계평화와 종교화해 국제학술대회

2006세계종교지도자대회와 함께 6월 9-10일에 열린 국제학술대회 ‘21세기 세계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은 총 6개과 분과로 나눠 불교 기독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원불교 도교 유교 등의 종교와 평화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헤티아릿치 스리랑카 국제 기구와 손잡고 자웨와테나푸라대학 교수는 “종교와 세계 평화를 주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UN과 같은 기구와 손을 잡고 ‘치유와 화해’를 위한 정신적 원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드루 윌케이트 영국 성필립센터 소장은 “모든 종교의 중심에 평화와 있지만 전 세계는 종교 갈등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평화를 향한 하나 된 종교적 의견을 제시하고 종교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으며 협력하려는 도전은 이번 세계종교지도자대회의 도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종교지도자가 왔다

반테 차오 추 태국 WFB 부회장	미야바사키 아키히코 일본 일한불교교류협회 회장	담바자브 몽골 불교 총정	림삼세원 몽골국립대 교수 불교연구소장	담마란타나 프랑스 테라바다 대표	헤티아릿치 스리랑카 자웨와테나푸라대학 교수
구룡 내팔 공공부조위원회	메나헨 하코헨 이스라엘 유대교 대표	마르와트 파키스탄 WCRP 세계 위원장	앤드루 윌케이트 영국 성필립센터 소장	T.D.심 인도 힌두교 대표	메이어 아비히 독일 예센대 교수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건강의 기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신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원칙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칙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행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생 원칙외선이 배속 깊숙히 침투하여 체온까지 42℃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은행석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칙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행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생 원칙외선이 배속 깊숙히 침투하여 체온까지 42℃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요일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